

###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칼럼이라는 이름의 무거움을 떨치고, 조금은 가벼운 웃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읽었던 '속담 인류학'(요네하라 마리 저, 한승동 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 때문에 출장이 잦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출장 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언제처럼 남편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보, 돌아올 때 언제 도착하면 꼭 전화해 주세요. 목욕물을 딱 좋은 온도로 데워 놓고, 저녁 식사도 맞춰서 내놓을 수 있게요."

남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정을 지니는 행복을 맛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출장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말한 대로 꼭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도쿄 역에 막 도착했어. 집까지는 30분쯤 걸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만 전화하는 걸 깜빡 잊고 자기 집 앞까지 와 버렸습니다. 창 너머로 실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어? 못 보던 남자가 발가벗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잘못 찾았다. 우앗, 아니야. 낯선 남자에게 안겨 있는 저건 분명히 내 아내야.

남편은 허둥지둥 빠져나와 근처 찻집에 들

어가더니 집에 전화를 겁니다. "아, 나야. 지금 도쿄 역에 막 도착했어. 집까지는 30분쯤 걸릴 거야."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을 맞은 건 언제나 그랬듯이, 적당한 온도의 목욕물과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미소 짓는 아내였습니다. 그 아늑함을 음미하면서 남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전화 한 통 까먹었다가 이 행복한 가정을 깨뜨릴 뻔했네."

#### 빠져나와야 할 6가지 감옥

어떻습니까, 재미있지요? 새해 벽두부터 무슨 쓸량한 얘기나는 분도 없었습니다만, 세네갈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가족을 화해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가정을 깨뜨리는 진실보다 낫다." 그리고 보니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인 모양입니다. 올 한 해 가정의 평화만큼은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ㅋㅋ

지난 한 해 동안 아는 사람들로 부터 좋은 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칼럼에 활용하라는 배려가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면서도 손안의 스마트폰 속에서 이렇게 좋은 글들을 접할 수 있으니 이래저래 좋은 세상입니다.

## 새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다. 그 좋은 글들을 새해 아침, 다 함께 공유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여섯 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옥은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들.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방하기를 좋아하지요.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비평하며 절망합니다.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떠들어대면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사람은 이 여섯 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 행복이 무엇인지 거만히 생각해 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임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임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임원시켜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한 뒤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와주었던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뻐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 이왕 할 거라면 '웃으면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고 실천합니다. 그렇게 하자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오르리 행번이 딸에게 보낸 유언 형식의 쪽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할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걸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가족 때문에 죽었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살아갑시다. "그냥"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구려 출신 문삼석 시인의 '그냥' 전문) '그냥'이라는 말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하는 누군가'가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수 덧붙이면서 올해 첫 인사에 가겠습니다. "누군가 할 거면 내가/ 인젠가 할 거면 지금/ 이왕 할 거면 웃으면서" 어디선가 본 시 같은데 인터넷을 다 뒤졌지만 끝내 지인이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좀 가르쳐 줘요)

그래도 이 시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온 세상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비밀스러운 해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엔 웃음이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뱃값, 1일부터 2000원 인상**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담배 판매가 급증했고, 당 번 편의점 담배 판매대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담배를 구하려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애연가가 많아졌다. 지난 30일 오후 당 번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 앞에서 가격 변동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소설	이연초	천화(遷化)	〈광주시 봉선동〉
▲시	임주아	복숭아	〈전주시 금암동〉
▲동화	김경락	둘기의 가출	〈서울시 남현동〉

## 중·고교 입학 5월초까지 허용

### 교육부, 입학시기 제한 폐지... 거주지 이전 없이 편입학도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고등학교 입학이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초에 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학생이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중·고등학교 입학시기를 놓쳐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던 '학업단절'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전 학과 달리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편입학은 학업중단자가 원적 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현행 규정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편입

학을 못하게 돼 있는 모순이 있어 이를 해소한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전행 기회도 확대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지더라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이 기존 정원 외에서 일부 정원 내로 확대된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거주지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외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뿐 아니라 초·중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 학력을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국 도시가스 요금 평균 5.9% 인하

1월 1일부터 광주 등 전국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9%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된다.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월의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

금은 현재보다 6294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유가하락 등 원료비 인하 요인이 도시가스 요금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